

청소년단체의 활동과 과제

차 광 선*

- I. 서론
- II.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문제점
- III. 청협의 국제활동
- IV. 외국의 청소년 단체활동
- V. 청소년 활동과제

I. 서론

고도 문명사회인 21세기는 첨단 과학 산업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화, 대중화, 도시화, 국제화된 사회속에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은 「2000년대를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에서 우리의 21세기는 선진 산업구조의 형성으로 정보의 폭증 현상을 가져오고 다양한 직종이 창출됨으로써 생활양식이 변하는 등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산업의 가속화는 우리 인간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각종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며 향상된 교육여건을 제공해주는 반면에 사회제도와 행동규범에 있어서 새로운 적응 형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업자본주의의 병폐현상중 하나인 인간경시풍조는 청소년들의 일탈문화를 야기시키거나 죄의식의 진공상태를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교육의지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이 시대의 청소년 육성과제의 중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동안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앞장서온 청소년단체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청소년단체의 역할과 문제점

1. 청소년단체의 역할

가정, 학교, 사회, 정부의 어느 하나가 주도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적인 노력과 정열을 바친다고해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며 또한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들간 교육적 기능분담과 역할수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상호 연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이어갈 믿음직한 후계세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기능 분담론에 입각하여 청소년단체 활동 추진 적응기 이후 청소년의 보호 및 지도육성활동을 추진해 온 청소년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갈등, 인간소외와 더불어 가정과 학교의 전인교육적 기능약화는 여러 공익 사회단체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사회적응 훈련, 자아정체감 정립 등 사회교육적 기능 수행과 함께 전문적 지도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취미, 놀이, 스포츠, 의상, 언어 등 각종의 문화접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고, 이념, 감정, 장애에 대한 포부, 이상향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목적수행과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건강한 가정, 학교,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항상 새로운 성원으로 바뀌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고정화되지 않는 주변환경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대하여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지도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청소년정책 수립, 시행에 따른 건의, 협조를 통해 범국민적 청소년육성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 여러나라의 문화와 청소년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새로운 국제의식을 복돋아 주어야 한다.

2. 청소년단체 활동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단체는 민간 청소년단체 중앙기구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에 31개의 청소년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각기 그 설립 목적과 이념에 따라 활동내용은 달리하고 있으나 모두 청소년들의 지적, 신체적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맥락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역할상의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재정상의 영세성 등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가 없다. 또한 그들의 요구를 성인세대의 정형화된 틀에 근거를 두고 파악했을 경우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연구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영세성으로 부분적인 문제점 부각이나 부정적 또는 소극적인 문제점 제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체의 재정상의 영세성은 활동 프로그램의 계획, 조직, 시행, 평가 등 그 전개과정에 있어서 단순한 프로그램을 답습하도록 하

는 요인이 된다.

한편 청소년 지도인력과 소유시설이 미흡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실내의 교육장, 야영장, 놀이마당, 문화활동장을 이용한 다양한 단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외 사회전반에 걸쳐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 1인 1단체가입 운동이 청소년단체와 행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위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운동이 미흡해 청소년단체 참여인구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III. 청협의 국제활동

1. 청협과 국제관계

국제 정세의 변화와 다원화로 인하여 세계 청년 운동의 방향이 급격한 변화를 겪어 오는 동안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민주진영의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인 “세계청년회의” *World Assembly of Youth : WAY*에 1966년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6차 총회에서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는데 그 후 청협은 제8차 영국 맨체스터 총회에서 10개 집행이사국으로 피선되기도 하였으며 제10차 스리랑카 콜롬보에서는 집행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되고 198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 11차 총회에서 재정담당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등 WAY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한편 한국의 청협이 1970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 지역 청소년 지도자 회의에서 WAY의 아시아 지역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던중 “아시아 청소년단

체 협력위원회”의 설치가 결의되어 그 사무국 기능이 한국의 청협에 위임되었으나 재정적인 문제와 WAY본부 아시아 지역 사무국의 거부를 받아 유보되었다가 인도청년회의 *Indian Assembly of Youth* 주최 WAY 아시아 지역 청소년 정책 세미나에서 이의 필요성이 재논의되자 1972년 8월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Asian Youth Council : AYC*를 발족시키고 그 창설 회원국으로서 능동적인 참여와 공헌을 하여왔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는 AYC와 WAY의 세계 여러나라들의 참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어 초창기 한국청협이 이들을 통해 도모하던 세계 각국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은 다시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전반적으로 강대국들이 탈퇴하면서 제3세계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갖게된 것이다.

1946년 연합국측 6개국의 청소년 대표들은 국제이해를 통한 세계 평화 달성에 젊은이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제1회 세계 각국 청년들의 모임인 “World Youth Congress”를 개최하였던 바 이것이 WAY의 전신으로 1949년 WAY(민주진영)와 WFDY *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 : 공산진영로 양분되어 이원화된 상태로 되었다가 그후 독일을 위시한 대다수의 유럽국가들은 “유럽청소년단체협의회” *The Council of European National Youth Committees*를 구성하고 WAY로부터 독립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8년 2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모인 제9차 WAY총회에는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영국,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만 참석하였고 지금까지 WAY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오던 미국도 제3차세계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옵서버

1명만 파견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가장 강력한 민주진영이 WAY가 유럽 제국과 미국의 후퇴로 40여개 군소 국가들의 협력체로 약화된 가운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되었다.

그러나 1983년 12월 1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0차 총회와 198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1차 총회를 계기로 기능회복을 위해 각국의 노력을 하고 있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여러나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따라 청협은 이렇게 다원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국제교류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과거 WAY,AYC를 통해 국제관계를 펼쳐 나갔던 것과 같은 노력으로 보다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아가야만 하게 되었다.

2. 청협의 국제교류 사업

청협은 1965년 창립된 이래 제반 국제기구와 WAY 및 AYC나 기타 각국의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움, 워크샵등에 우리나라의 대표를 선발하여 파견하여 왔다.

특히 1979년 9월 문교부와 공동으로 15개국 청소년 및 지도자 68명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국가 개발과 청소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청소년 및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아·태지역 AYC 회원국을 상대로 추진하여 온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상호 이해, 협력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수 있다. 1978년까지는 주로 소수의 대표만을 국제행사에 파견하였으나 1979년의 초청 행사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진되고 86아시아 경기대회, 88올림픽대회 개최국으로서의 국력신장으로 각국의 청소년 단체들이 한국을 방문

하는 기회가 많아져 명실상부한 교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특별히 올림픽 이후 체육부에 청소년 업무전담부서가 생기면서 유럽 지역까지 확대하여 교류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청협의 청소년 및 지도자 국제교류는 회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연합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단체간의 협동심 함양, 이해심 증진, 자기개발능력 고취등 내적인 효과도 크다 할 수 있으나 국제화 시대에 접한 젊은이들에게 국제성 함양과 지도력을 배양시키는 물론 주변 국가와의 비교 판단으로 국가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국가관, 애국심을 확고히 갖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협의 국제교류사업은 순수한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민간외교 역할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할 때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1〉 청협의 국제교류 실적(10년간)

년 도	실 적		계
	파 견	초청(방한)	
1980	95	20	115
1981	91	83	174
1982	107	36	143
1983	119	65	184
1984	80	99	179
1985	61	96	157
1986	41	92	133
1987	190	107	297
1988	87	129	216
1989	188	454	642
합 계	1,059	1,181	2,240

IV. 외국의 청소년단체 활동

세계 여러나라의 청소년단체활동 사항은 각 나라의 청소년정책이나 국민들의 호응 여부에 따라 차이가 심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연령규정 등이 다양해 필자는 국내 청소년단체 활동과 비교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가와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등 동남아 여러국가의 특징적인 단체활동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미국과 서구 유럽국가의 청소년활동

방대한 조직의 나라 미국은 현재 67개의 청소년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체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각 청소년단체가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행정당국에 의한 지원정책에 의존하지도 않고 또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경향도 적다. 결국 청소년단체 운영은 회비나 사업수입 등을 포함한 자체자금과 민간재단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청소년활동 공간도 학교나 교회 또는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지방교육당국의 지원하에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클럽활동과 국방성의 후원에 의한 단체활동, 그리고 60개의 민간 청소년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취미 등 소규모 서클이 지역별로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소년체육여가청이라는 행정관청을 통해 청소년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같은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종교나 당파성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방

대한 조직체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적 단체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외 청소년운동이라고 하면 독일이 연상될 만큼 독일의 청소년운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의 경우는 청소년 복지법이나 청소년계획에 의해 다양한 청소년단체가 육성되고 있는데 연방 수준의 본부를 가진 단체가 100여개가 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며 운동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과급되어 국민통합운동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 동남아 국가의 청소년활동

일본은 청소년교육을 담당하는 문부성을 비롯하여 각 부·처가 청소년 시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총무청에 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청소년 업무를 연락·조정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 청소년 학급을 별도로 운영토록 하여 필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전육성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국민회의를 설치하여 국가차원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22개의 민간단체 중앙기구인 일본 중앙청소년단체연합회의를 중심으로 사업활동을 협력 지원하고 있다. 현재 행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여러나라 중에서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국제교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대만 등 동남아 국가의 대부분은 각기 자기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21개의 전국단위 청소년단체 그리고 13개의 주청소년협회 등 34개의 청소년단체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다민족 국

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범국민적 공동체 결성을 위한 활동과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잘 조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청소년협의회 *KNPI*를 중심으로 *Pancasila* 정신에 입각한 청소년 활동을 통한 국민정신 교육과 직업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이 조직과 활동을 통하여 육성하고 있다.

싱가폴은 인민협회 *People's Association*의 커뮤니티센터를 활동 현장의 중심체로 하여 5개의 지역청소년회의와 102개의 지역단위 청소년 클럽을 두고 있는데 방대한 조직활동이 아닌 지역중심의 청소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만은 싱가포르의 경우와는 반대로 반공 민주체제를 철저하게 지향하는 특수성으로 정부차원의 중국청년반공구국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단체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모든 청소년 정책, 시설, 활동프로그램 등을 총괄하고 있다.

V. 청소년활동 과제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도 청소년육성법(법률 제3973호)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988년 시행령 공포와 함께 이를 근간으로 행정부의 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구성을 비롯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기능·강화 등 범국가적 청소년육성 추진체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1989년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단체가 세제상의 혜택과 각종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약 1천억원 규모의 청소년육성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국내 청소년

단체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점에서 각 청소년단체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각 청소년단체는 목적사업의 충실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들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폐쇄성 또는 소극적인 면을 다개해 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범국민적 청소년 육성운동을 청소년단체가 주도해 갈 때 국민 모두는 또 다른 관심과 호응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는 각 단체의 독자적인 활동능력을 보강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띄어나 다행스러운 것은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과 전 국민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소년현장이 제정된 사실이라하겠다.

그리고 현재의 학교 중심적인 단체활동을 지역단위 중심의 단체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덕망있는 인사나 청소년 지도에 경험이 있는 인력을 관리하여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전문적인 지도능력을 개발시켜야 한다.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제를 실현과 더불어 우리도 지역단위의 청소년단체 조직 및 활동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 본다.

한편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과도기적 세대나 주변인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과 함께 일방적인 지시나 불순한 동기에 대한 개입 등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려 한다면 그들로부터 반항감만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에 앞으로는 하향식의 지도방식으로부터 과감하게 탈

피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청소년과 함께 대화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운데 잠재해 있는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주는데 청소년 지도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활동 프로그램도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시각과 진단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조정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각 청소년단체는 가중되는 가치관의 혼란과 증가 일변도의 욕구를 가지게 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을 심화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활동의 소외계층인 농어촌청소년, 근로청소년, 빈곤가정청소년, 미진학청소년,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단체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개방화되고 청소년들의 국제교류가 필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말레

이지아 등 동남아 국가에 한정되며 활동프로그램도 일반적인 시찰, 천선방문, 상호교환 등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교류 대상국을 유럽,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소련, 동독, 중국 등 미수교국과도 교류활동을 전개하며 프로그램도 교환연수, 세미나, 활동조사단 파견 및 초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해결과 목적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청소년단체는 새로운 청소년 문화형성과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성원으로 바뀌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일은 일시적인 과제가 아닌 항상 새롭고 영원한 과제가 된다. 아울러 청소년단체의 노력만으로 그 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연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비로소 청소년 육성과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